

우리나라 의사학(醫史學)의 연구 동향

- 의학 역사를 다룬 저작을 통한 고찰 -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및 ²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 경 희^{1,2} · 황 상 익¹

= Abstract =

Medical Historiography in Korea

Jung Kyung-Hee^{1,2} and Hwang Sang-Ik¹

¹Department of the History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

²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 Ang University

The research on medical history in Korea has gradually expanded in scope and quantity since the publication of Kim Doo Jong's pioneering work, *History of Korean Medicine*(韓國醫學史, 上·中世篇)(1955), especially in the last two decades. Survey on the works in the field is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What follows, however, is in no sense a review of all the pertinent literatures. Articles, theses and monographs by Korean researchers from 1955 to these days will be discussed with some categories.

Key Words: Medicine, Historiography, Korea

목 차

머리말

I.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

II. 시기-세부분야별 저작 편수를 통한 양적 고찰

III. 세부분야별 연구 동향

1. 의서지학

2. 지역별 의학사

3. 의학분과사

4. 의학교육사 및 병원사

5. 질병사

6. 치의학사, 간호사, 보건위생사

7. 약사 및 한의학사

8. 의료와 사회의 관계를 다룬 연구

9. 학제적 성격을 띤 연구

맺음말

머 리 말

1955년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상·중세편)』¹⁾ 출간 이후 한국에서의 의과학 연구는 점차 양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범주도 확대되어 왔으며, 그러한 경향은 특히 최근 20년 동안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의과학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는 1992년 신동원의 논문²⁾과 1994년 황상익의 논문³⁾이 있다. 신동원은 한국의학사를 다룬 저작들에 한정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논저를 고찰하였으며, 황상익은 국내외 전반에 걸친 의과학 연구 경향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신순식⁴⁾은 한의학사 분야를 중심으로, 황상익 등⁵⁾은 질병사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연구 동향을 살핀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저작과 그 이후에 발표된 저작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의과학 연구 전반에 대해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의 역사를 다룬 저작들을 몇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의학의 역사라 함은 황상익이 「의학사 연구의 동향」⁶⁾에서 지적했듯이 실용적인 목적과 관점에서 고전 의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며, 실사 고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그 고전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고전의 탄생 배경, 사회적 수용의 모습과 과정 등의 해명이 탐구 목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반 이래 구미에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원용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의학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된 의과학의 범주 즉,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의 역할,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형성과 발전, 의료인으로서의 여성의 역사, 여성과 관련된 질병과 의료적 상태의 사회적·역사적 함의에 대한 연구도 이 글에서 고찰할 저작들에 포함된다. 또한 의사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환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학, 치료의 역사를 치료법 발견과 개발 과정을 비롯하여 그 사회적 영향과 함의라는 측면에서 연구한 저작들도 고찰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앞에 말한 의학 역사에 부합되는 모든 문헌을 검토하거나, 의학 역사 연구의 모든 범주를 고찰하려는 것은 아니다. 주로 1955년 이후 정기

간행물과 연구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과 학위논문, 단행본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저작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대신 각 범주 내에서 두드러진 것들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과학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속사 및 의식주 생활사, 구휼 재난사, 인구사 분야의 연구성과들이 충분히 망라되지 못하였으며, 한의학계에서 이루어진 한의학사와 중의학사(中醫學史) 연구도 비교적 소략하게 언급될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은 우리나라 의과학계의 연구성과를 개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언급되는 저작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보다는 각 범주별로 개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며, 그 점이 이 글의 한계점을 미리 밝혀 둔다.

I.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

각 분야별 연구 동향을 살피기 전에 해당 분야에 어떠한 성격과 내용의 저작들이 포함되는지를 언급한다. 이 글에서는 의서지학, 지역별 의학사, 의학분과사, 치의학사, 간호사, 보건위생사, 약사, 한의학사, 의학교육사, 병원사, 질병사, 의료와 사회의 관계를 다룬 연구, 학제적 성격을 띤 연구, 대학·협회·학회사, 번역서 등 15개 범주로 저작들을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들이 포함된다.

(1) **의서지학**: 의학서적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의학·의료와 관련된 사건을 시기별로 기록한 연표, 의과학의 연구동향을 문헌 중심으로 살펴본 저작들이 포함된다.

(2) **지역별 의학사**: 어느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상황 전반을 서술한 저작들이 속하며, 이는 다시 세계의학사, 한국의학사, 동양의학사, 서양의학사로 세분된다. 여기에는 의학과 관련된 인물과 의학사상을 다룬 저작도 포함된다.

(3) **의학분과사**: 현대의학에서의 학문 분류를 근거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법의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정신과학, 의공학 등으로 세분되며 지역에 구분 없이 특정 시기 또는 전시대에 걸쳐 각 분과를 다룬 저작들이 이에 포함된다.

(4) **의학교육사**: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등 의학 관련 학교의 역사와 의료인 양성 및 교육의 역사를

다른 저작들이 포함된다.

(5) **병원사**: 병원에 대한 일반적 역사 서술, 특정 병원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 병원의 조직구조 변천사 등에 관한 저작들이 포함된다.

(6) **질병사**: 질병 일반의 시대적 변천을 다룬 저작, 특정 질병을 역사학적으로 다룬 저작, 특정 시기 및 집단의 질병 양상, 질병관, 병상기록 등을 다룬 저작들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과학, 인구학, 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사회와 질병의 상호관계와 그 함의를 다룬 저작들도 이에 포함된다.

(7) **치의학사**: 지역에 구분 없이 치의학에 관한 저작들이 포함된다.

(8) **간호사**: 간호 전반에 걸친 역사, 간호교육사, 간호사업사, 간호직 등이 포함된다.

(9) **보건위생사**: 지역에 구분 없이 각 시기 또는 시대 전반에 걸친 보건위생 상태를 다룬 저술과 보건위생사상, 보건위생의 역사를 살핀 저작들이 포함된다.

(10) **약사**: 약의 발달사, 특히 한국의 경우 본초에 대한 연구와 약령시 연구가 여기에 속하며, 약재생산지, 의약정책, 약학자, 약업소, 약의 유통을 다룬 연구도 포함된다.

(11) **한의학사**: 허준, 이제마 등 한의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한의학서를 다룬 저작들이 포함된다. 한의학서의 내용과 사상보다는 서지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한 논저들은 의서지학에 포함시켰다.

(12) **의료와 사회의 관계를 다룬 연구**: 의료와 사회의 관계를 역사학적으로 다룬 저작들이 포함되며, 이는 의료와 사회 일반, 의료윤리, 의료직, 의료제도와 정책, 전쟁과 의료 등으로 세분된다. 의료윤리에는 환자-의사관계를 다룬 저작들이, 의료직에는 한국의 의관·의녀에 관한 저작들 및 의사 개인에 대한 저술과 집단으로서의 의료인에 대한 저작들이 포함된다. 의료제도와 정책에는 제도와 정책 전반에 걸친 역사학적 저작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저작들이 포함된다. 전쟁과 의료에는 특정 시기의 전쟁이 의료에 미친 영향을 다룬 저작과 전쟁과 의학의 일반적 관계를 다룬 저작이 포함된다.

(13) **학제적 성격을 띤 연구**: 의학과 종교, 의학과 예술, 의학과 체육 등으로 세분된다. 의학과 종교에

는 민속신앙, 도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와 의학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룬 저작들과 '개화기' 이래의 선교의료 등이 포함된다. 의학과 예술에는 문학, 미술, 음악, 영상, 건축 등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의학의 모습과 이들과 의학의 상호관계를 다룬 저작들이 포함된다. 의학과 체육에는 체육활동, 체육사상, 체육교육, 신체관 등에 관한 역사학적인 저작들, 그리고 이들과 의학의 상호관계를 다룬 저작들이 포함된다.

(14) **대학·협회·학회사**: 학술적인 연구저작이라기보다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들로, 대부분 대학, 협회, 학회 등에서 편찬한 것들이다.

(15) **번역서**: 의사학 및 관련분야 외국 저작들의 번역물들이 포함된다.

II. 시기-세부분야별 저작 편수를 통한 양적 고찰

어떠한 분야의 연구에서든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 시기별로 어떠한 분야에 어느 정도의 연구물들이 산출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의 표를 통한 고찰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한눈에 살펴보고, 어느 시기에 어떤 분야에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졌는지를 짚어보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의사학의 연구 방향을 전망하는 자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55년 이후 의사학 관련 저작의 수가 점차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80년대 이래 특히 9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한 경향은 중국의학사, 보건위생사, 의학교육사, 한의학사, 병원사, 의료선교, 의료윤리, 개항 이후의 한국 의학사, 의료와 사회 일반을 다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한국의학통사, 조선시대에 관한 연구, 간호사, 약사, 전염병사 등은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들이다. 그리고 80, 90년대에 걸쳐 대학사, 협회사, 학회사의 편찬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번역서가 90년대에 들어 급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40여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물을 배출한 분야로 의료제도사, 한국의학사와 전염병사 등을 들 수 있다. 의료와 사회 일반에 속하는 연구물들은 주로 20세기 중반 이래 발전한 구

표. 시기-세부분야별 저작 편수

분야별		연도별							계	
		54년이전	55-59	60-69	70-79	80-89	90-			
의서지학	일반	1		5		2	21	29		
	의사연표			1		1	2	4		
	연구동향						4	4		
지역별 의학사	세계					5	6	11		
	한 국	통사	2	2	3	1	1	2	11	46
		고조선				1	3	1	5	
		삼국	1				4	1	6	
		고려					1		1	
		조선	1	1		1	1	3	7	
	아시아	개항이후				1	10	5	16	41
		중국			1		21	17	39	
		일본					1		1	
	시 양			1	1	1	9	12		
의학분과사	해부학		1				4	5		
	생리학					1	5	6		
	병리학				1	1	3	5		
	법의학		1					1		
	산부인과학					1	3	4		
	정신과학				5	1	5	11		
	흉부외과학						1	1		
의공학						1	1			
의학교육사						3	21	24		
병원사 및 의학단체사						6	10	16		
질병사	질병사 일반			1	1	9	5	16		
	질병관				1	2	1	4		
	전염병	일반			2	2	8	2	14	32
		결핵	1		2		2	2	7	
		기생충						3	3	
		나병					2	2	4	
기타		1				3	4			
치의학사			1		2	1	4			
간호사	1		2	1		3	7			
보건위생사			1		12	10	23			
약사 (藥史)	일반		1	3	3	6	6	19		
	약령시	1			1	8	1	11		
한의학사				2	9	15	26			
의료와 사회	일반					8	18	26		
	의료윤리	일반					4	4	9	
		환자-의사관계					1	4		5
	의료직	일반					2	3	5	17
		의녀/의관			2		4	6	12	
	의료제도 및 정책	일반				2	8	12	22	50
한국의료제도		1	3	3	14	7	28			
전쟁과 의료						1	2	3		
학제적 연구	의학과 종교	의료선교		1	1	5	4	11	27	
		민속신앙	1	1		1	2	5		
		기타종교					1	10		11
	의학과 예술					1	3	4		
의학과 체육					1	5	6			
대학 및 협회, 학회사	1		1	9	22	28	61			
번역서	1		1	1	3	25	31			
계		11	8	34	39	200	317	609		

미의 새로운 의학사 연구방법론, 즉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의료 전반을 살피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이것이 앞으로 전문 의사학자 등의 주된 연구분야 가운데 한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세부분야별 연구 동향

(1) 의서지학: 서책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물리적 형태를 조사·분석·연구·평가하여 기술하는 서지학의 중요성은 의학 역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출간된 김신근의 『한의약서고』⁷⁾는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의서 중 총 140종에 대하여 해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근대 의서도 포함하고 있다. 1995년 신순식은 「고려시대 이전의 한의학문헌에 관한 연구」⁸⁾에서 『고려노사방(高麗老師方)』 등 5종의 의서에 대해 원문 소개와 교감, 주석, 직역, 의역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 방식의 지은이와 저작 시대를 고증하고, 당시 의학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명하였다. 신순식은 이어서 1996년에는 이 연구를 확대하여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 I』⁹⁾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형태로 출판되었다. 여기에서는 앞서 5종의 의서에 10종을 더하여 조선시대 이전 한의약 문헌의 저자, 저술시기, 판본학, 의학내용 등을 명확히 하였고 『삼국사기』 등 9종의 비한의약 문헌에 들어 있는 의약 내용을 발췌, 분석하였다. 한편 1996년 김성수는 「한국의 옛 의서」에서 삼국의 의서들과 고려시대 한의학자들이 조선전기 한의학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조선전기의 한의학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의보감』에 집대성되고 완성되었는가를 보이기 위해 각 시대의 의서를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들이 다수의 의학문헌에 대한 고증인 반면 1994년 김중권의 『허준의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¹⁰⁾는 개인의 저작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서지학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김중권은 이 3종의 의서가 편찬된 당시 허준의 위치, 편찬배경과 동기 등을 밝히고 이들 의서의 발행처인 내의원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형태적·내용적 검토를 덧붙였다. 또한 이들 의서와 『동의보감』 각 편의 대조를 통하

여 오자, 탈자 등을 바로잡고, 인용문헌 분석을 통하여 허준의 저작으로서의 독창성 여부를 구명하였으며, 『동의보감』과의 관계도 밝히고 있다. 그밖에 한승련¹¹⁾, 안춘근¹²⁾, 신동원¹³⁾은 『동의보감』에 대해 김종렬¹⁴⁾, 김대원¹⁵⁾은 『제중신편』에 대해 서지학적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김두종의 『한국의학사』」¹⁶⁾, 「『조선보건의사』」¹⁷⁾, 「미키 사카에의 한국의학사 연구」¹⁸⁾ 등 근대 이후의 저작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의학잡지의 역사를 다룬 연구로는 강석영의 「한국의학잡지 역사」¹⁹⁾와 전중휘의 「의서 및 학술지의 발간역정」²⁰⁾이 있다.

한편 의료 전반에 관한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된 연표로 김두종의 『한국의학문화대연표』²¹⁾와 전중휘의 『한국현대의학·의료문화연표』²²⁾가 있다. 전자는 한국의학의 문화사적 전망을 시대적으로 고증하고 의료기술과 사회와의 시대적 변천을 살핀다는 목적 하에 기원전 1121년부터 1914년 9월까지의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고, 후자는 김두종이 다루지 않았던 현대 부분 즉, 1875년에서 1993년까지를 망라한 것이다. 전중휘는 또한 1992년 『현대의학의 발전; 그 연대와 인물들』²³⁾이라는 제목으로 히포크라테스 이래 세계의학사 전반에 걸쳐 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의사학자 Gert Brieger가 *The Historiography of Medicine*²⁴⁾에서 medical historiography에 대한 관심이 최근 의학사 연구의 중요한 경향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 의학사편찬사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1992년 신동원의 「한국 보건의료사 연구 동향」, 1994년 황상익의 「의학사 연구의 동향」, 1997년 신순식의 「한국 한의학사 연구동향」, 1997년 황상익 등의 「질병사 연구 동향」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각각의 의학사 연구결과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비판을 하였다기보다는 그 분야의 연구경향을 개략적으로 살피는 수준에 머문 것들이어서 본격적인 의학사편찬사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2) 지역별 의학사: 세계의 의학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것으로 김두종의 『동서의학사대강』²⁵⁾이 1981년

출판되었다. 전·후 2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전편에서는 서양의학사, 후편에서는 동양의학의 변천과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후편은 제목처럼 동양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모든 의학계통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한방의학을 중심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일본은 중세 및 근세에 걸쳐 간략하게 소개하였을 따름이다.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진 의학 통사로 김종명의 『의사학개론』²⁶⁾과 백영한의 『의학사개론』²⁷⁾이 있다. 1991년 황상익은 『의학의 역사』²⁸⁾를 편저하면서 서명 앞에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어를 붙였는데, 이는 의학의 역사에서 오랜 동안 주인공 행세를 해온 의학자나 의료인뿐 아니라 그들의 진료와 연구의 대상이었던 ‘민중들’이 의학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저작이 ‘재미있는’ 것만이 아님은 각 장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당시의 의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저작은 기존의 의학통사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전종휘²⁹⁾, 이부영³⁰⁾ 등도 의학개론서에서 세계의학사 기술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한편 최근 허정은 『아시아 전통의학을 찾아서』³¹⁾에서 중국 의학이 곧 동양 또는 아시아 의학이라는 시각을 뛰어넘어 티베트, 몽골, 인도, 베트남, 위그르 등의 전통의학을 다루었다.

한국의 의학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김두종의 『한국의학사』가 단연 돋보인다. 김두종은 1955년 상·중세편을 출간한 이후 1966년 근세·현대편을 추가하여 『한국의학사(전)』³²⁾을 완성하였다. 원시 의학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시대별로 의사와 의인, 의료제도, 질병 등 의료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살피고 있는 김두종의 이 저작은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게 무수히 인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의 저작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한의학자인 노정우³³⁾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한국문화사대계 III』에서 한국의학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 상당 부분 김두종의 저작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1992년 허정은 『에세이 의료한국사』³⁴⁾에서 고대부터 최근까지 보건의

료에 관한 사실 중 역사상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한 바 있다. 1981년 북한에서 출간된 홍순원의 『조선보건의료』³⁵⁾는 우리나라 고대부터 최근까지의 보건의료와 의학의 역사를 주체사상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각 시기의 보건의료사를 그 사회의 고유한 계급관계에 바탕을 두어 해석한 1편과 해방 이후 주체적인 사회주의보건의료의 틀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서술된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학사를 시대별로 다룬 저작 중에는 개항 이후에 관한 것이 가장 많으며 고조선, 삼국, 조선 시대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되고 있으나 고려시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1996년 임태수는 「한국 고대의 의료행위에 대한 고찰」³⁶⁾에서 주거지, 묘제, 생활유물, 신앙 등을 통하여 당시 의술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성격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김종열³⁷⁾은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고조선시대의 의학내용을 살폈으며, 권학철³⁸⁾은 우리나라 상고시대와 고조선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통해 당시 의학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삼국시대에 대한 연구로는 손광락의 「신라시대 의학에 관한 연구」³⁹⁾와 신영일의 「삼국시대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⁴⁰⁾이 당시 외래 의학과 교류 및 의료제도, 질병발생, 구휼제도 등에 대해 살피고 있다. 또한 1992년 여인석⁴¹⁾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의학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삼국시대의 의료상황을 파악하였다. 삼국시대에 관한 이들 연구는 모두 『삼국사기』라는 공통된 일차문헌을 토대로 한 것들이다.

고려시대에 관한 연구로는 1988년 정면⁴²⁾이 『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병증, 사용약재와 그 사용법을 살피고 중국의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고려의학이 독자적인 치료체계를 가졌다고 고찰한 바 있다.

조선시대에 관한 연구로 김두종⁴³⁾은 세종시대의 의료를, 손홍렬⁴⁴⁾은 고려말 조선초의 의서 편찬과 간행에 대해서, 김남주⁴⁵⁾는 조선후기 궁안의 의료상황을, 김홍균⁴⁶⁾은 조선중기 의학계통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조선시대 의학사상가로 정약용⁴⁷⁾과 최한기⁴⁸⁾에 대한 연구가 있다.

개항 이후에 대해서는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비교적 긴 시대에 걸쳐 의료전반을 정리한 것들이 있는

데, 1983년 대한의학협회의 『사진으로 본 한국의학 100년』, 1984년 의학신보의 『한국의학 100년사』, 정구충의 『한국의학의 개척자』(1985·87년), 1987년 전종휘의 『우리나라 현대의학 그 첫세기』, 1988년 대한의학회의 『한국현대의학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개 개항 이후 한국 의료계의 중요한 사건들과 각종 데이터를 수록한 자료집의 성격을 띤 것들이다. 이밖에 정규환은 1995년 「부산지역 의료 120년사」⁴⁹⁾를, 기창덕은 「조선시대말 개명기의 의료」⁵⁰⁾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중국의학사에 대한 연구는 이동원, 하문, 장종정, 장개빈 등 의인들의 사상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이수완은 1988년 「근대 중국에서의 중의학 변천사에 관한 연구」⁵¹⁾에서 서양의학의 도입과 중·서의학의 병립, 의사제도의 근대화, 중의 폐지론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발 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한편 이금준⁵²⁾은 일본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논문을 1982년에 발표하였으며, 홍원식은 그 동안의 연구를 정리하여 1984년 『중국의학사』⁵³⁾를 발표하였다.

서양의학사에 대한 저작으로 강석영의 『불가사리의 수수께끼 - 서양의학사담 II』⁵⁴⁾, 신동렬의 『서양의학발전사』⁵⁵⁾ 등은 서양의학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다. 성영곤의 「그리스 의사와 히포크라테스의 전통」⁵⁶⁾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것이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그리스 의사들의 내적 자각의 결과임을 밝히고, '선서'를 포함한 규범서들의 분석을 통해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규범, 더 나아가서 보편윤리의 문제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밖에 이태준⁵⁷⁾은 생의학 모델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를, 김기훈 등⁵⁸⁾은 중세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연구한 바 있다.

(3) 의학분과사: 의학에는 다양한 분과 또는 세부 분야가 있으나 각 분과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해부학의 역사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택은 1957년 「우리나라에서 실용되어 온 인체해부도」⁵⁹⁾에서 우리나라 해부학사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는 고찰을 하였고, 여인석⁶⁰⁾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해부학이 도입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비교 연구하고 그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에 대해 연구한 바 있

다. 여인석은 또 박형우⁶¹⁾와 함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한국인 최초의 해부학자인 최명학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폈다. 이들이 한국 또는 동양의 해부학에 대한 연구임에 비해 성영곤⁶²⁾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인체해부가 행해졌다는 통설을 바탕으로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 사이의 거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시기의 의학전통과 사상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생리학에 대해서는 권영규⁶³⁾가 동의생리학에서의 장부(臟腑)를 정확하게 밝힌다는 목적으로 동의학의 역대 의서를 통하여 해부형태학적 관찰과 자연 및 인체의 현상을 바탕으로 장부의 기능을 고찰한 바 있다. 김옥주⁶⁴⁾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의 형성 과정에 대해, 황상익^{65,66)}은 서양에서 근대 생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병리학에 대한 연구로는 1975년 김영제가 『한국 병리학사』⁶⁷⁾에서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래 병리학의 전개과정을 살피고 있으며, 1980년에는 『비루효의 생애와 사상』⁶⁸⁾을 저술하였다. 그 뒤 지제근⁶⁹⁾이 우리나라에 서양의 병리학이 도입되어 정착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한의학의 병리이론에 대한 연구로는 여인석의 「한의학의 병리이론」⁷⁰⁾이 있으며, 김민석⁷¹⁾은 『동의보감』과 『무원록』의 질병기록에 대하여 현대병리학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한편 이영택은 「근세 조선의 법의학적 재판과 무원록에 관한 연구」⁷²⁾에서 조선시대의 재판의학을 개관하였으며, 최혜연⁷³⁾은 우리나라의 조산제도에 대해, 홍성봉⁷⁴⁾은 『언해태산집요』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산부인과에 대해, 조면휘는 고대의 산부인과⁷⁵⁾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정신의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부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부영은 한국의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정신병관과 치료에 대한 연구, 동·서 정신의학 진단사, 일제하 정신과 진료의 변천 등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⁷⁶⁾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부영의 지도로 이나미⁷⁷⁾는 17세기부터 일제 초기까지 서양 정신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을, 정원용⁷⁸⁾은 그 이후 즉 1920년대초부터 8·15 광복이전까지 근대 서양정신의학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변천되었는지를 진료, 교육, 연구의 측면에서 고찰하

였다.

(4) **의학교육사 및 병원사:** 의학교육사와 병원사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이래, 특히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창덕의 연구가 돋보인다. 기창덕은 지식영의 종두술 학습을 필두로 하여 제증원에서의 의학교육, 종두의양성소·의학교·대한의원부속의학교·조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경성의학전문학교·경성제국대학의학부 등 국가에 의한 서양의학교육, 사립여자의학교육, 평양과 대구에서의 의학교육, 의학계의 해외유학생, 의학교육의 현대화 과정 등 주로 개항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서양의학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의사학』 잡지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1995년 『한국근대의학교육사』⁷⁹⁾로 결실을 맺었다. 이같은 기창덕의 연구는 풍부한 일차사료를 꼼꼼히 인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같은 시기의 의학사를 다루는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서와 자료집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를 다룬 연구로 김상덕의 「여자의학강습소」⁸⁰⁾, 이충호의 「일제침략하 의사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⁸¹⁾ 등이 있다. 이충호는 특히 일제 침략기인 동인회의 의사교육활동, 대한의원을 일본식으로 개조하여 그들 방식으로 지배하는 과정과 그곳에서의 의사교육활동 양상,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의학부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의사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수탈해 가는 과정을 살피고, 의사교육을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삼은 식민지 교육의 본질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대해서는 김락영⁸²⁾이 조선전기 중인층을 형성하게 하였던 잡학교육의 실태에 대해 의학교육을 중심으로 살핀 것이 있으며, 문수진⁸³⁾은 고려시대의 기술교육 전반을 살피면서 의학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황상익⁸⁴⁾과 이종찬⁸⁵⁾은 미국의 의학교육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전자의 것은 20세기 미국 의과대학의 개편과 의학교육의 개혁이 전적으로 1910년의 <플렉스너 보고서>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미국 초기 시대부터 의학교육의 전개과정과 비정규의료인을 의료시장에서 축출하여 의료를 독점하려는 미국의사협회의 노력 그리고 <플렉스너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과정 및 그 뒤에 나타난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미국 의학교육 개혁의 전체상과 사회적 함의, 이후 미국 및 20세기 현대의학 전반의 특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물이다.

그리고 병원과 의사단체의 역사를 다룬 저작들도 1980년대 중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1985년 진종휘는 「우리나라 병원의 지나간 100년간의 발자취」⁸⁶⁾에서 1877년 부산 영도에 설립된 '제생의원'을 국내에서 현대의술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병원이라고 설정하고 1970년대까지를 개관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를 다루면서 병원의 구조변천을 주로 살핀 것으로 박재산⁸⁷⁾의 연구가 있다. 박재산은 1877년 이후 병원의 설립운영주체와 병원규모, 조직체계, 정부정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병원사를 다루고 있다. 한편 특정 병원에 대한 연구로는 제증원에 대해 이광린⁸⁸⁾과 신동원⁸⁹⁾의 연구, 대한의원에 대해 이충호⁹⁰⁾의 연구가 눈에 띈다. 의사단체에 대한 연구로는 여인석의 「한성의사회에 대하여」⁹¹⁾ 등이 있다.

(5) **질병사:** 질병사에 대한 연구는 질병의 변천사를 개괄적으로 다루거나, 질병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천착하거나 혹은 질병관, 전염병 발생과 그에 대한 구료시책 등을 파악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구⁹²⁾는 1960년에서 197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35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통계를 통해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이 질병양상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문호⁹³⁾는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20년부터의 우리나라 질병의 변화양상을 살폈다. 한편 박미혜⁹⁴⁾는 지역주민의 의료인식과 행태 등을 이해하기 위해 민속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주민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질병, 건강, 의료시설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이것은 의료지리학 분야를 다룬 드문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1981년 김영제의 『고대 서구의학의 질병관』⁹⁵⁾은 현대병리학의 관점을 통해 고대부터 갈레노스까지의 질병관을 다루고 있는 저작이다. 또한 최근 이종찬⁹⁶⁾은 서구의학의 질병관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을 하였다.

질병사 연구 가운데 특히 전염병의 역사를 다룬 저작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4년 우리나라

라의 전염병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김두종의 「우리나라의 역병고」⁹⁷⁾ 이후 전종휘는 1975년 『한국 급성전염병 개관』⁹⁸⁾에서 일제시대 이후 전염병의 역학적 추이를, 「전15년·후15년」⁹⁹⁾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급성전염병의 변천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를 다룬 것으로 이인숙¹⁰⁰⁾의 연구도 있다.

변정환¹⁰¹⁾은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당시에 유행한 전염병에 대한 질병관, 구료시책, 방역사업 등을 보건사적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김남주¹⁰²⁾는 고려시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김호¹⁰³⁾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전쟁과 기근, 17세기 초반 생태학적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역병의 창궐양상과 인구감소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을 사회사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밖에 특정 질병에 대한 연구로 결핵감염력의 추이, 기생충 감염의 시대적 변천, 나병의 추이 등은 비교적 최근 시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김두종¹⁰⁴⁾, 김옥주¹⁰⁵⁾, 이꽃메¹⁰⁶⁾, 전종휘¹⁰⁷⁾ 등의 두창에 대한 연구는 조선 말기를 대상으로 한 저작들이다. 한편 신동원의 「조선말 콜레라 유행에 관한 고찰」¹⁰⁸⁾은 조선후기 전염병의 국내외적 유행 조건,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콜레라에 대한 전통적 대응과 새로운 서양식 대응 등을 다룬 것으로 특히 전통적 대응방법이 서구식 방법으로 바뀌면서 일제의 식민화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주목하였다.

(6) 치의학사, 간호사, 보건위생사: 여기에서는 편 의상 치과의학의 역사, 간호사와 보건위생사에 관한 저작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966년 최진환¹⁰⁹⁾은 『향약집성방』 및 『동의보감』에 언급된 치과 관련 내용이 중국 의서의 인용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동양의학의 구강해부, 생리, 위생 및 치료에 대해 살피고 개항 이후 서양의 치과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창덕¹¹⁰⁾은 한국치과의학사를, 이한수¹¹¹⁾는 세계 치과사 전반에 걸친 저작을 출판하였다. 기창덕의 저작은 1995년¹¹²⁾ 개정증보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식생활과 구강상태를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현대까지를

망라하여 개관하였다.

간호의 역사에 대한 연구로는 1933년 고정환의 『조선간호사』¹¹³⁾와 1968년 이영복의 『간호사』¹¹⁴⁾가 있는데, 후자에는 한국간호사뿐 아니라 세계간호역사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보건위생사에 관한 연구로는 1984년 허정이 로마시대의 공중보건에서부터 현대까지를 다룬 『서양보건사』¹¹⁵⁾가 있다. 그리고 1995년 이종찬이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¹¹⁶⁾를 출간하였는데, 이는 선사시대 이래 서양의학의 내용과 보건위생, 전염병 등에 대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고찰을 시도한 저작이다. 그밖에 이동목¹¹⁷⁾은 구한말 이전의 보건후생에 관하여, 안덕균¹¹⁸⁾은 세종시대의 보건위생에 관하여, 신동원¹¹⁹⁾은 김옥균의 치도사상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다. 또한 윤종만¹²⁰⁾은 한국인의 보건위생사상을 고대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으며, 1991년 김귀분¹²¹⁾은 한국인의 건강관행에 대하여 민속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7) 약사 및 한의학사: 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우리나라의 의약 또는 서양의약 전반을 다룬 것들과 약업, 약재생산지, 의약정책, 약령시 등 특정 분야에 관한 것들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1980년대 이후 약령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정민성은 1990년 『우리 의약의 역사』¹²²⁾에서 고조선의 약물요법부터 삼국, 고려, 조선시대 의약의 발달사, 근대의료제도가 형성되면서 서양의약이 침투하는 과정, 일제의 향약 말살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본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덕봉은 「한국생물학의 사적 고찰」¹²³⁾에서 본초의 일반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이조 본초의 연구」¹²⁴⁾에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의서인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제중신편』, 『본초유합』 등에 나오는 본초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덕봉은 약물의 대외교류 등에 관한 이후 연구를 합쳐 1968년 『한국생물학사』¹²⁵⁾를 출간하였다. 한편 임명기¹²⁶⁾는 향약 자주화 정책의 개괄적 파악과 현대적 맥락에서의 이해를 위하여 향약 자주화 정책의 기본 자료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된 약재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임명기는 약재 303종을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으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식물성 약재를 중심으로 각 도의 고을별로 생산지 분

포를 고찰하여 세종 때의 생산지와 현재의 생산지를 비교하였다. 그밖에 홍문화는 근대 이후 우리나라 약학의 성장을 다룬 「한국약학사」¹²⁷⁾를 1977년에 발표하였으며, 그 뒤 1980년의 『약사산고』¹²⁸⁾에서는 세종의 향약정책, 한국인삼의 기원, 생약의 역사 등을 다루었다. 또한 1972년 홍현오¹²⁹⁾는 서양의약이 도입된 한말 이후 약학, 약업의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약령시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있었는데 1937년 이인영의 대구약령시 기원에 대한 논문¹³⁰⁾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이인영은 약령시의 발생요인으로 대일 수출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뒤 1976년 최영숙¹³¹⁾은 약령시의 기원 및 기능에 대해 기존의 여러 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권병탁¹³³⁾은 「약령시 연구」라는 제목 아래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하며 약령시의 발전 배경을 규명한 바 있다.

앞의 저작들이 우리나라의 의약사에 관한 것인 반면 1994년과 1997년 강건일¹³³⁾은 서양의약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진자는 일반인들을 위한 개설서이며 후자는 보다 학술적인 성격을 띠면서 약의 발전사를 다루고 있다.

한의학에 대한 연구는 중의학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醫人)들과 그들의 사상 및 의서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허준과 『동의보감』, 이제마와 그의 사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신순식은 1996년 『고려시대 이전 한의약학에 관한 연구』¹³⁴⁾에서 상고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에 걸쳐 당시 사람 몸의 구조·생리·병리 등의 기초의학, 실제 병의 진단과 치료 등 임상의학, 도교의학 및 불교의학과와의 관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조직의 성립, 일본·중국과 의사·의약의 왕래 및 의서의 수입 등 의학교류, 당시의 의가 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8) 의료와 사회의 관계를 다룬 연구: 의료의 내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사회과학적 방법론들을 원용한 연구는 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 1990년대에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신동원은 1986년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¹³⁵⁾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대화 과정과 식민지화 과정을 살핌으

로써 일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또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대해 연구하여 일제의 보건의료정책의 성격을 도출하였다. 신동원은 또한 1996년¹³⁶⁾ 오늘날 보건의료의 초기적 형태가 개항부터 일제 강점기 이전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인구의 양적·질적 관리 문제가 대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97년 조형근¹³⁷⁾은 지난 1세기 동안 전통의료체계가 주변화되고 대신 서구의 근대의료기계가 모니를 장악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여 일제가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료체계를 수립하고자 한 목적, 수단,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제시기를 다룬 또 다른 연구로 남은우¹³⁸⁾는 당시의 보건의료를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또한 김운성은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¹³⁹⁾에서 선교의료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몸」에 관한 사유체계가 어떻게 기계론적 의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관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탐구하였다. 앞의 저작들이 개항기 및 일제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손홍렬¹⁴⁰⁾과 김호¹⁴¹⁾는 보다 앞선 조선 중기 당시 의학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종찬은 「19세기 독일 사회의학의 역사적 발전」¹⁴²⁾, 「근대 임상의학의 형성에 관한 두가지 다른 역사적 해석」¹⁴³⁾을 통해 근대 서양의학의 전개과정을 사회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바 있다.

의료윤리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로 성영곤은 「그리스 의료윤리의 이상과 실천」¹⁴⁴⁾에서 그리스 시대 의사들의 직업윤리를 이상적·실천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으며, 김용진¹⁴⁵⁾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77권의 동양 문헌에서 의료윤리와 관련되는 156종의 문장을 발췌하고 이를 의사의 윤리와 환자의 윤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자-의사관계를 다룬 저작으로는 이부영의 「황제내경에서 본 의사-환자관계」¹⁴⁶⁾, 채득룡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¹⁴⁷⁾ 등이 있다.

의료직에 대한 연구로 1988년 조병희¹⁴⁸⁾는 일제시대 이후 국가와 의사집단 상호관계 속에서 의사집단의 성장과정을 살피고 있으며, 그는 1994년 이 연구를 토대로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 전략」¹⁴⁹⁾을

출간하였다. 의료직에 대한 연구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의녀와 의관에 대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1962년 김두중의 연구¹⁵⁰⁾ 이래 성수현¹⁵¹⁾, 박선미¹⁵²⁾ 등이 의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성수현은 의녀제도, 박선미는 의녀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선후기의 의관에 대해서는 그들의 임용과정과 사회적 지위, 시취, 경제적 활동양상, 관직진출 현황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의원의 지위와 그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도 보인다.

의료제도사에 대해서는 손홍렬의 연구가 눈에 띈다. 손홍렬은 1981년 고려시대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발로 고대사회, 고려시대, 세종조 등의 시기에 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1988년에는 이를 종합하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연구』¹⁵³⁾를 출간하였다. 여기에서 손홍렬은 고대부터 조선전기까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여러 가지 의료제도를 시대별로 고찰하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발전이 대중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그밖에 엄익수는 1980년 「한국 의사(醫事)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¹⁵⁴⁾를, 한대희는 1996년 「조선시대 전기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¹⁵⁵⁾를 발표하였으며, 이웅정¹⁵⁶⁾은 세종년간의 의약정책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전쟁과 의료의 관계에 대한 논문도 몇편이 있는데 신오성의 「한국전쟁 전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¹⁵⁷⁾, 손홍렬의 「임진왜란과 조선의 의학」¹⁵⁸⁾ 등이 그것이다.

(9) **학제적 성격을 띤 연구:** 종교와 의료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 가운데에는 특히 의료선교에 대한 것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개화기 선교의료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이 여러 편 있다. 1965년 이관숙의 「의료선교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¹⁵⁹⁾, 1972년 이춘란의 「한국에 있어서 미국선교의료활동」¹⁶⁰⁾, 1982년 한신교의 「알렌 연구」¹⁶¹⁾, 1985년 이만열의 「기독교 선교 초기의 의료사업」¹⁶²⁾, 정혜원의 「한국의료선교사(1884-1940)」¹⁶³⁾, 1994년 이상규의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 전래와 교육·의료활동(1880~1910)」¹⁶⁴⁾ 등은 모두 선교의료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서 연구된 저작들이다.

한편 1969년 박계홍은 「무가 중세사회에 끼친 영향」¹⁶⁵⁾에서 고려시대의 무술적 치료행위 양상을 살

폈다. 그리고 불교의학과 약사신앙, 교회활동으로서의 의료사업, 도교의학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병원 건축에 대한 것으로는 유영민의 「우리나라 병원건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¹⁶⁶⁾가 있다. 그리고 소설과 민담 속에서 의료의 모습을 살피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체육학 분야에서 주로 진행된 것으로 퇴계 이황의 체육사상에 관한 연구, 개화기 학회보의 체육보건 관련 논설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의사학 연구를 몇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들이 한가지 범주에만 속하기보다는 둘 이상에 걸쳐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적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그 동안의 의사학 관련 연구결과들이 주로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이래 의학의 역사와 성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의사학 연구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아직 수는 적지만 전문적으로 의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그들의 연구성과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의 발전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1992년에 창간된 『의사학』(대한의사학회 기관지), 1990년부터 발간된 『한국보건의사학회지』(한국보건의사학회) 및 1987년에 첫선을 보인 『대한원전의사학회지』(대한원전의사학회)는 이들 의사학 관련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발표하는 장으로 우리나라 의사학 연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저작들은 각각의 수준에 앞서 그것들이 다룬 소재와 주제들이 우리나라 의사학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발굴된 사료들이 앞으로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수준을 드높이는 일은 이제부터의 연구자들의 몫일 터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두중. 한국의학사(상·중세편). 정음사, 1955.
- 2) 신동원. 한국 보건의료사 연구 동향. 한국보건의학회지 2(1): 101-116, 1992.
- 3) 황상익. 의학사 연구의 동향. 과학사상 9: 167-179, 1994.
- 4) 신순식. 한국 한의학사 연구동향. 대한의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초록집 및 1997년도 정기총회자료집. 16-17, 1997.
- 5) 황상익, 정경희, 신좌섭. 질병사 연구 동향. 대한의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초록집 및 1997년도 정기총회자료집. 20-29, 1997.
- 6) 황상익. 의학사 연구의 동향. 과학사상 9: 167, 1994.
- 7)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8) 신순식. 고려시대 이전의 한의학 문헌에 관한 연구. 의사학 4(1): 45-66, 1995.
- 9) 신순식. 역대 한의학 문헌의 고증 I. 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 10) 김중권. 허준의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11) 한승련. 동의보감의 서지학적 고찰. 종합의학 6: 1961.
- 12) 안춘근. 동의보감의 서지학적 고찰. 동양의학의 경전. 귀암학보 1: 33-41, 1991.
- 13) 신동원, 김남주, 허정. 「동의보감」의 「역대의방」은 과연 인용문헌을 적은 것인가? 한국보건의학회지 3(1): 11-16, 1995.
- 14) 김종열. 제중신편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15) 김대원. 강명길의 「제중신편」 연구. 한국보건의학회지 3(1): 5-10, 1995.
- 16) 여인석. 김두종의 『한국의학사』. 대한의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초록집 및 1997년도 정기총회자료집. 2-3, 1997.
- 17) 박형우. 『조선보건의사』. 대한의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초록집 및 1997년도 정기총회자료집. 4-5, 1997.
- 18) 신동원. 미키 사카에의 한국의학사 연구. 대한의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초록집 및 1997년도 정기총회자료집. 1, 1997.
- 19) 강석영. 한국의학잡지 약사. 일산 김두중 박사 회수 기념논문집. 261-314, 탐구당, 1966.
- 20) 전종휘. 의서 및 학술지의 발간역정. 우리나라 현대 의학 그 첫세기. 206-359. 인제연구장학재단, 1987.
- 21) 김두중. 한국의학문화대연표. 탐구당, 1966.
- 22) 전종휘. 한국현대의학·의료문화연표(1875-1993). 인제연구장학재단, 1994.
- 23) 전종휘. 현대의학의 발전; 그 연대와 인물들. 인제연구장학재단, 1992.
- 24) Gert Brieger. The Historiography of Medicine.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 24-44. Routledge, 1993.
- 25) 김두중. 동서의학사 대강. 탐구당, 1981.
- 26) 김종명. 의사학개론. 형설출판사, 1981
- 27) 백영한. 의학사개론. 계축문화사, 1991.
- 28) 황상익.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 동지, 1991.
- 29) 전종휘. 현대의학의 사적 기반. 의학개론 신광출판사, 1985.
- 30) 이부영·황상익. 의학의 개념과 역사. 의학개론 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31) 허정. 아시아 전통의학을 찾아서. 한울, 1997.
- 32) 김두중. 한국의학사(전). 탐구당, 1966.
- 33) 노정우. 한국의학사. 한국문화사대계 III. 737-87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8.
- 34) 허정. 에세이 의료한국사. 한울, 1992.
- 35)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1981.
- 36) 임태수. 한국 고대의 의료행위에 대한 고찰 - 천군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37) 김종렬. 고조선시대 의학내용 연구 -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38) 권학철. 상고시대와 고조선시대의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39) 손광락. 신라시대 의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40) 신영일. 삼국시대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41) 여인석, 이규창. 삼국사기에 나타난 의학 관련 기사의 분석. 의사학 1(1): 83-87, 1992.
- 42) 정면. 고려의학의 자주성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43) 김두중. 세종대왕의 제생위업과 의학의 자주적 발전. 서울대학교 논문집(인문과학) 5, 1957.
- 44) 손홍렬. 고려말 선초의 의서의 편찬과 간행. 한국과 학사학회지 11(1): 39-52, 1989.
- 45) 김남주. 조선후기 궁안의 의료상황 - 「응천일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학회지 1: 41-59, 1992.
- 46) 김홍균. 조선 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47) 홍문화. 의·약학자로서의 다산의 사상과 업적. 다산학보 1, 1978.
- 48) 여인석, 노재훈. 최한기의 의학사상. 의사학 2(1): 66-79, 1993.
- 49) 정규한. 부산지역 의료 120년사. 부산의사회지 31(6): 43-46, 1995.
- 50) 기창덕. 조선시대말 개명기의 의료 (1). 의사학 5(2):

- 169-196, 1996.
- 51) 이수완. 근대중국에서의 중의학 변천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52) 이금준. 일본한의학 변천사에 관한 연구 - 명치유신을 진후하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53) 홍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4.
 - 54) 강석영. 불가사리의 수수께끼 - 서양의학사담 II. 전파과학사, 1978.
 - 55) 신동렬. 서양의학발전사. 수문서관, 1994.
 - 56) 성영근. 그리스 의사와 히포크라테스 전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57) 이태준. 생의학(Biomedicine)의 의사학적 고찰과 이의 학모델의 한계성 및 문제점. 의사학 2(1): 1-9, 1993.
 - 58) 김기훈, 유형식. 중세의 보건의료에 관한 일고찰. 한국보건의학회지 2(1): 117-125, 1992.
 - 59) 이영택. 우리나라에서 실용되어 온 인체해부도. 서울대학교 논문집(자연과학) 5집. 1957.
 - 60) 여인석. 동양 삼국의 해부학 도입 역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61) 박형우, 여인석. 해부학자 최명학. 의사학 1(1): 88-91, 1992.
 - 62) 성영근.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인체해부와 그 배경. 한국과학사학회지 12(1): 3-19, 1990.
 - 63) 권영규. 동의생리학에서의 장기 개념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과대학 석사학위논문. 1989.
 - 64) 김옥주. 파블로프(I.P. Pavlov)의 조건반사 이론의 형성과정. 의사학 1(1): 19-30, 1992.
 - 65) 황상익, 김옥주. 19세기 서유럽 생리학의 전문과학화 과정. 의사학 1(1): 36-44, 1992.
 - 66) 황상익. 생기론과 기계론 - 17, 8세기적 합의. 의사학 2(2): 99-113. 1993.
 - 67) 김영제. 한국병리학사. 전파문화사, 1975.
 - 68) 김영제. 비루효의 생애와 사상 - 그의 뜨거운 인간애, 과학정신, 개혁의지. 범문사, 1980.
 - 69) 지제근. 한국의 병리학, 그 도입과 정착. 의사학 2(2): 159-177, 1993.
 - 70) 여인석. 한의학의 병리이론. 의사학 4(1): 37-44, 1995.
 - 71) 김민석. 우리나라 고전의서인 동의보감 및 무원록의 질병기록에 관한 병리학적 검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72) 이영택. 근세 조선의 법의학적 재판과 무원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자연과학) 4집, 1956.
 - 73) 최해연. 우리나라의 조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74) 홍성봉. 조선후기 산부인과 의료에 관한 소고 - 허준의 언해태산집요를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 119: 986-996, 1991.
 - 75) 조면휘, 박현국. 고대 산부인과의 의사학적 연구. 1995.
 - 76) 이부영. 한국민간의 정신병관과 그 치료; 무속사회의 정신병관. 신경정신의학 9, 1970.
 - 이부영. 동의보감에 나타난 정신병 치료. 보건신보 1052-1060, 1976.
 - 이부영. 동·서 정신의학 진단사의 제연구. 의사학 1(1): 92-97, 1992.
 - 이부영. 일제하 정신과 진료와 그 변천. 의사학 3(2): 147-169, 1994.
 - 77) 이나미. 서양정신의학의 도입과 그 변천과정 - 17세기부터 일제 초기까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78) 정원용. 근대 서양정신의학의 전개와 변천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79)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1995.
 - 80) 김상덕. 여자의학강습소 - 1928년에서 1938년까지. 의사학 2(1): 80-84, 1993.
 - 81) 이충호. 일제침략하 의사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82) 김락영. 조선전기 잠학교육 소고 - 역학·의학교육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83) 문수진. 고려시대의 기술교육. 신구전문대논문집 13: 23-47, 1994.
 - 84) 황상익. 20세기초 미국 의학교육의 개혁과 <플렉스너 보고서>. 의사학 3(1): 1-19, 1994.
 - 85) 이종찬. 보건대학원 모델의 역사성 - 191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의사학 5(2), 111-128, 1996.
 - 86) 전중휘. 우리나라 병원의 지년간 100년간의 발자취. 대한병원협회지 130: 12-21, 1985.
 - 87) 박재산. 우리나라 병원의 조직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88) 이광린. 제중원 연구. 한국 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 89) 신동원. 공립의원 제중원, 1885-1894. 한국문화 16: 181-260, 1995.
 - 90) 이충호. 대한의원의 의사교육활동. 성신사학 12·13: 215-251, 1995.
 - 91) 여인석, 이규창. 한성의사회에 대하여. 의사학 1(1): 31-35, 1992.
 - 92) 이재구. 한국인 질병이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화된 양상에 관한 통계학적 조사연구.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20: 171-199, 1981.
 - 93) 이문호. 최근 한국의 질병 변천. 대한의학협회지 350: 283-290, 1989.
 - 94) 박미혜. Ethnomethodology에 의한 병과 건강의 이해.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95) 김영제. 고대 서구의학의 질병관. 전파과학사, 1981.
 - 96) 이종찬. 서양의학의 질병관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 의학사상사 시론. 과학사상 14: 127-156, 1995.
 - 97) 김두중. 우리나라의 역병고. 대한의학협회지 4. 1964.

- 98) 전중휘. 한국급성전염병 개관. 최신의학, 1975.
- 99) 전중휘. 전15년·후15년. 일산 김두중 박사 회수기념논문집. 177-210. 탐구당, 1966.
- 100) 이인숙. 우리나라 역학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101) 변정환. 조선시대의 역병에 관련된 역병관과 구료시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102) 김남주. 고려시대에 유행된 전염병의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103) 김호. 16세기말 17세기초 '역병' 발생의 추이와 대책. 한국학보 71: 120-146, 1993.
- 104) 김두중. 우리나라 두창의 유행과 종두법의 실시.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 4, 1956.
- 105) 김옥주. 조선 말기 두창의 유행과 민간의 대응. 의사학 2(1): 38-58, 1993.
- 106) 이꽃매.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에 관한 연구 - 1876년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107) 전중휘. 전날의 마마(두창)와 그 예방. 의사학 2(2): 122-125, 1993.
- 108) 신동원. 조선말 콜레라 유행에 관한 고찰. 보건장학회연구논문집 10: 50-81, 1988.
- 109) 최진환. 한국지학사의 연구. 일산 김두중 박사 회수기념논문집. 397-414. 탐구당, 1966.
- 110) 기창덕. 한국지과의학사(상). 민족문화추진회, 1987.
- 111) 이한수. 치과의사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 112) 기창덕. 증보 한국지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
- 113) 고정환. 조선간호사. 조선간호부회, 1933.
- 114) 이영복. 간호사. 수문사, 1968.
- 115) 허정. 서양보건사. 신광출판사, 1984.
- 116)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명경, 1995.
- 117) 이동목. 구한말 이전 보건후생적 활동의 시대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1.
- 118) 안덕균. 세종시대의 보건위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 119) 신동원. 김옥균의 지도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사학회지 1(1): 53-58, 1990.
- 120) 윤종만. 한국인의 보건 위생사상에 관한 고찰 - 고대를 중심으로. 인천전문대논문집(인문사회·체육계) 14: 425-435, 1990.
- 121) 김귀분. 한국인의 건강 관행에 대한 민속과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122) 정민성. 우리 의학의 역사. 학민사, 1990.
- 123) 이덕봉. 한국 생물학의 사적 고찰 1, 2. 아세아연구 2(1)·2(2), 1959.
- 124) 이덕봉. 이조 본초의 연구. 중앙대학교 이공학보 2, 1966.
- 125) 이덕봉. 한국생물학사. 1968.
- 126) 임명기. 세종조의 의료정책에 따르는 약재 생산지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 127) 홍문화. 한국약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7.
- 128) 홍문화. 약사산고. 동명사, 1980.
- 129) 홍현오. 한국약업사. 약업신문사, 1972.
- 130) 이인영. 大邱藥令市の起源に就いて. 城大史學會報 13, 1937.
- 131) 최영숙. 대구 약령시의 연구 - 갑오경장 이후의 변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132) 권병탁. 약령시 연구 VI - 18세기 약령시 발전의 배경. 영남대사회과학연구 5(1): 101-122, 1985. 등
- 133) 강건일. 재미있는 약 이야기. 학민사, 1994. 강건일. 현대 약 발전사. 까치, 1997.
- 134) 신순식. 고려시대 이전 한의약학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소, 1996.
- 135)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136)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137) 조형근. 일제시대 한국에서 의료체계의 변화와 그 사회적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138) 남은우.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본 일제하의 보건 의료. 고신대학교논문집 17: 365-376, 1989.
- 139) 김윤성. 개항기 개신교 의료선교와 몸에 대한 인식들의 '근대적' 전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140) 손홍렬. 「동의보감」 편찬의 역사적 배경. 귀암학보 1: 28-32, 1991.
- 141) 김호. 16세기말~17세기초 의서편찬의 배경과 허준의 동의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142) 이종찬. 19세기 독일 사회의학의 역사적 발전. 의사학 3(1): 20-29, 1994.
- 143) 이종찬. 근대 임상의학의 형성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역사적 해석. 의사학 3(2): 193-207, 1994.
- 144) 성영곤. 그리스 의료윤리의 이상과 실천. 의사학 4(2): 123-146, 1995.
- 145) 김용진. 의학윤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146) 이부영. 황제내경에서 본 의사-환자관계. 서울의대정신의학 103: 1-16, 1986.
- 147) 채득룡.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148) 조병희. The State and Physicians in South Korea, 1910-1985: An Analysis of Professionalization. Ph.D Thesis. Univ. of Wisconsin. 1988.
- 149) 조병희.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 전략. 명경, 1994.
- 150) 김두중. 근세 조선의 의녀제도에 관한 고찰.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 1, 1962.
- 151) 성수현. 조선시대 의녀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152) 박선미. 조선시대 의녀교육 연구 - 그 양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153)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수서원, 1988.
- 154) 엄익수. 한국 醫事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155) 한대희. 조선시대 전기의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 경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156) 이용정. 세종의 의약정책에 관한 연구 1. 동서의학 17: 59-63, 1982. 이용정. 세종의 의약정책에 관한 연구 2. 동서의학 18: 37-43, 1982.
- 157) 신오성. 한국전쟁 전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 (1945-1959): 한국전쟁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58) 손홍렬. 임진왜란과 조선의 의학. 청대사림 12(6): 5-30, 1994.
- 159) 이관숙. 의료선교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5.
- 160) 이춘란. 한국에 있어서 미국선교의료활동(1884-1934). 이대사원 10, 1972.
- 161) 한신교. 알렌 연구 : 한국에서의 선교 및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162) 이만열. 기독교 선교 초기의 의료사업. 동방학지 46, 47, 48 합집. 1985.
- 163) 정혜원. 한국의료선교사(1884-1940).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64) 이상규.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 전래와 교육·의료활동(1880-1910). 항도부산 11: 169-221, 1994.
- 165) 박계홍. 무가 중세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민속학. 1969.
- 166) 유명민. 우리나라 병원건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I - 서양의학 도입시기(1877-1910)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3: 199-206, 1991.